

순창군 1146억 국가예산확보 성과

각종 공모사업 집중·인적네트워크 동원한 전략적 성과 분석

순창군이 올해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신규로 1,146억원을 확보해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은 이번 예산 확보로 국가예산 총액 3년 연속 1천억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확보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대폭 축소는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공모사업 집중과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한 전략적 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군은 한국형 글로벌 장전강프로젝트 60억,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8억, 적성슬로공동체권역중

합정비 39억원 등 굵직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참살이 발효마을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전통발효문화산업투자선도지구와 연계 추진하는 내용으로 순창의 장류산업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사업으로 평가 받는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98억여원을 포함해 총 316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발효테라피 센터, 추억의 전통식품거리, 세계발효마을 농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군은 내년 실시설계와 착공을 위한 7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참살이 발효마을 사업 이외에도 군

은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성슬로공동체권역종합정비사업, 석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심초지구 새마을을 사업, 순창군지역역량강화 사업, 행복주택 등 군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사업에서 대거 국비를 확보해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용결산 자연휴양림 조성, 섬진강 뷰라인 조성사업 등 관광객 500만 유치를 밑그림이 될 사업과 협포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금일천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다수사업에 국가예산도 확보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721억원 확보 **선운천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200억원(38%) 늘어난 721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국책사업 175억원을 더하면 총 896억원으로 900억원대를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5일 군에 따르면 박우정 군수는 예산 발굴부터 반영까지 실무부서와 함께 직접 챙겨왔으며, 순기별로 국가 예산팀을 세종시와 국회에 상주시키다시피 하면서 박 군수가 직접 26회에 걸쳐 세종시와 국회를 방문

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반영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민선자치 시작 이래 첫 70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기조가 신규 사업의 억제와 SOC 및 농림분야의 타이트한 예산편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과정에서 2014년 477억원, 2015년 521억원(9.2%)에 이어 2016년에 721억원으로 38%로 2년 연속 큰 폭의 상승이 이뤄져 민선 6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도계(고창)~장성 국지도 건설공사 11억(총 389억원), 도계(백양)~석정 국지도 50억(총 298억원), 정읍(내장)~고창간 4차선 확포장 사업 40억원(총 888억원), 고창~국도22호(부안~해리) 개선 5억원(총 472억원) 등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SOC 구축예산도 확보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친환경 생태도시 선두주자인 고창으로 확고한 위치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70억원이 소요되는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과 156억원이 투입되는 '선운천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20억원의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관광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계속사업비 또한 600억원 이상 확보하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발주가 가능해져 고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겨울철 도로 제설 사전대비 나서

내년 3월15일까지 도로 설해대책 상황실 본격 운영... 제설장비·자재 투입 등

남원시가 기상이변에 따른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도로 제설에 대한 사전대비에 나서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도로공사, 국도유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지역 민간단체와 설해대책 협조체계를 확립하였고 이달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도로 설해대책 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눈이 내릴 경우 주요 간선도로인 56개 노선(426km)에 제설장비 및 자재가 투입되고, 23개 읍면동에서는 141명의

제설봉사대원들이 1톤 트럭 및 트랙터용 제설기 141대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300톤의 제설용 모래와 모래주머니 1만개를 보급하고 주요도로변에도 모래주머니 2만개를 배치 완료하였다. 이 밖에도 친환경 제설제 80톤을 구입하여 교량 및 통학로 구간 9km에 대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여 시민건강과 도로 파손 차량부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6일부터 내년 3월13일까지 고기3거리~정령치~달궁 삼거리 12km의 구간을 도로 통제구간으로 지정하여 차량교통을 통제한다.

아울러 교차로, 교량, 경사가 급한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로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청정원 바자회 후원행사 성료

자사제품판매·일일찻집·먹거리장터·놀이마당 등

대상(주) 순창공장(공장장 임병웅)은 순창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의 꿈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청정원 바자회 노사공동 후원행사'를 지난 3일 대상(주) 순창공장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말 순창지역 거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소원 및 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대상(주) 순창공장이 자사 제품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올해로 14회째 진행되고 있어, 매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는 청정원 자사제품판매, 일일찻집, 먹거리장터, 놀이마당,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특히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을 활용한 요리경연 대회가 별도로 진행되어 6개팀의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각자 준비한 요리를 뽐내는 시간도 가졌다.

대상(주) 순창공장 임병웅공장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이성재 의원

임실군의회의(의장 문영두)는 제264회 정례회에서 내년 군 살림살이를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5일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장은 문영두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 의원(진남근, 김왕중, 유정근, 문홍식, 신대용, 이성재, 장종민 의원)이며, 위원장에 이성재 의원, 간사에 유정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예결특위는 5일부터 오는 20일 까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54억

8,993만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82억 7,354만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억 9,344만원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확정된다.

이성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201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택과 분배의 균형감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저탄소 생활 실천 전북대회 최우수 선정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남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저탄소 생활 실천 전북대회'에서 14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 시로 선정됐다.

또한 전북도 녹색아파트 사업에 남원 호반리제시빌아파트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관리사무소 부문에 남원 메카센터아파트도 선정되어 남원의 녹색아파트 두 곳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12월 14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저탄소 생활 실천 성과보고회에서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부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작년 대비 7% 증가된 전체 세대의 46%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고 가정, 상가, 학교에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컨설팅 사업 운영으로 총 464곳을 실시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특이점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사업 선정

임실군이 전라북도가 공모한 '2017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군 옷나무 재배단지 74ha에 달해 단일 지구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최근 식품소재 활용에 '옷'이 승인됨에 따라 식품산업에 집중 육성코자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 지방비 35억원 총 65억원을 투자해 유통·가공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옷 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관료대책 부재와 순창 전통장류식품의 신제품 개발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임실군과 순창군이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한다.

올해 순창군과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서며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등 산·학·연·관의 공동참여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옷의 건강기능성 개별 인정 및 옷과 장류제품을 연계한 교부가 가치 식품 개발과 생산·판매시설,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원가절감, 생산공정 표준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옷을 활용한 저염, 기능성 발효식품 및 식품 포장재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과 유통·가공시설 확충으로 옷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옷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여할 것"이라며 "옷 특구 지정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청소년 선도활동 만전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 흥덕파출소(소장 이강신)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연시와 방학 등으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가솔·탈선 등 범죄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고, 학생과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방과 후 학교주변에 대한 가시적·예방적 순찰 및 선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수능 종료 후 청소년들의 배회가 예상되는 PC방, 오락실, 주점,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 흡연, 성폭력 등 탈선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함께 늦은 시간 청소년 발견시 귀가 조치 등 선도·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강신 파출소장은 "학생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귀갓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맞춤형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행복누리마을을 평가회 개최

임실군은 5일 생명사랑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행복누리마을' 사업 1주년 평가회를 개최했다.

군 보건의료원은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위원을 통한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실시했다.

강진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평가회는 시범마을 이장 및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결과보고, 감사패 수여, 노래교실 순으로 진행됐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행복누리마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누리마을은 농촌지역 자살예방 시범사업으로 강진면(강진, 강서, 갈담, 학석)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정신건강진단 조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우울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예방 캠페인, 교육활동(웃음치료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구독문의 288-9700